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하위구인의 내용타당성연구*

김인경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첫째, Lapsley 등(1987)의 통합가설이 제시하는 분리개별화 과정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관계를 검증하고, 둘째, 자아중심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자아중심성과 청소년의 심리사회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셋째, 이러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중심성의 두 하위구인에 포함된 개념적 특성과 두 구인 간의 내용타당성을 추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과 4년제 대학 및 전문 대학의 남, 여학생 83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NIAS/NPFS)과 분리개별화 과정(SITA), 그리고 자아개념 척도(SIQYA)에 대한 자기보고식 반응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아중심성과 분리개별화 과정간의 정적 관계를 보여,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할 때 생기는 방어적 행동특성이라는 Lapsley의 가설을 지지했다. 특히 자아중심성의 두 하위구인인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분리개별화 과정의 하위영역들과 각각 서로 다른 관련을 맺고 있어, 자아중심성의 두 하위구인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시사했다. 즉, 상상속의 청중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혼자가 되는데 대한 불안(분리불안)과 관련이 있었고,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내적 상태와 능력에 대한 지나친 관심(자기몰입),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상대에게 의존 욕구를 표현하지 않으려는 행동(의존부정)과 관련이 있었다. 둘째, 자아중심성과 자아개념(심리사회발달)과의 관계에서 상상속의 청중은 자아개념의 모든 영역과 부적 상관을 보여 부정적 자아개념과 관계가 있는 반면에, 개인적 우화는 모든 영역과 정적 상관을 보여 긍정적 자아개념을 보였다. 따라서 자아중심성의 두 구인이 일반적 부적용 및 적응잠재력 차원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두 하위개념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칭해서 사용하는데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종래에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하위구인으로 상정되어 있으나, 이 두 개념은 실제로 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개념 간의 상호관계도 다름을 시사한다.

최근 수행된 일련의 국내 연구(김인경, 1993a ; 김인경과 장근영, 1992 ; 장근영과 윤진, 1992)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이 청소년 중기 이후에 일관성있게 증가했다. 이런 연령증가에 따른 자아중심성 경향의 증가는 기존 이론 및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발달양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정의에는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미성숙으로 인한 '왜곡된 자기에 대한 환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

*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 일부이며, 그동안 지도해 주신 윤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연구 결과는 다수의 우리 청소년을 발달적 미성숙 내지는 발달지체로 해석하게 하거나,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발달적 미성숙 내지는 발달적 지체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내용이 과연 부정적 부산물이어서,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원론적 의문이다. 이와 같은 의문은 청소년들이 처한 문화적 환경의 차이와, 본 연구자와 앞선 연구자들이 사용해온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정의 및 측정도구의 문제에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문화 내의 대인관계 장면에는 전통적으로 “체면”이라는 의식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체면은 평등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 사회에 비해 타인의식적이고 신분지향적인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교환자원으로 작용한다(최상진, 1993; 최상진과 유승엽, 1992). 또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에 관해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탐색하며 자신의 사고를 숙고하는 자의식(self-consciousness) 경향은 우리 대학생의 경우, 미국 대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다(양은주, 1992).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개념적 정의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란 측면은 특히, 이런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두 하위 구인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의와 그 측정방법, 즉 척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상속의 청중은 자신을 평가하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경향을 일컫는 반면에, 개인적 우화는 이런 경향에서 과생된 혹은 동시발생적으로 생긴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 믿음을 말한다. 따라서 두 구인 간에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과 함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런 관련성과 차이점에 대해 거의 보고하지 않았다. 단,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상상속의 청중은 사회적 기술의 미

숙, 수줍음, 신경과민(Cohn et al., 1988), 의존성(Hauck et al., 1986), 그리고 부정적 자아개념(Mullis et al., 1988), 낮은 자존심과 자아발달 수준(Lapsley et al., 1988) 등과 관련을 보였다. 반면에 개인적 우화는 자살상념 및 우울감과 부적 관계(Cole, 1988)를 보였다. 그리고 국내 연구(김인경, 1993a,b; 김인경과 장근영, 1992; 김인경, 미출간)에서 이들 구인 간의 상관인 .15에서 .25로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이 두 구인의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새로운 이론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아중심성의 증가현상에 대한 발달지체 이외의 보다 적절한 설명을 찾고, 이런 현상이 실제로 청소년의 발달 및 적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며, 동시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하위구인으로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내용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

많은 이론가들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자아를 반영해보려는(self-reflection) 경향의 전제조건으로서 형식조작 사고의 출현을 제안했다. 사람의 사고와 내적인 사건들에 대해 숙고하는 능력은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는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아가 개인의 경험을 감독할 수 있는 지적 정신 과정들의 저장소로서 부각되는 것은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부터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의 주요 과제는 사고를 정복하는 것, 즉,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이다(Elkind, 1967). 이런 새로운 인지 능력의 출현과 더불어 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즉, 이런 인지적 능력을 청소년들이 조망수용이나 자아반영적 판단을 포함한 다른 기

술에다가 접합시킬 때 나타날 수 있다(Fisher, 1980; Harter, 1983). 예를 들어 자신의 지적인 집착(mental preoccupation)으로 인해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서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이것을 Elkind(1967)의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이라 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과 외모에 대해 타인들도 똑같은 집착을 가진다는 잘못된 가정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이야기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주인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에 의해서만 독특하게 경험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자신의 절망이나 환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또 다른 구인이 되는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이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인지구조를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자아와 타인 간에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분화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Lapsley와 Rice(1987)는 이런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뿌리로서 청소년기의 자아발달을 제안하면서, Blos(1967)의 이차분리 개별화(secondary individuation separation)과정과 Selman의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이론을 통합하여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를 가설화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점차 심리적으로 독립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실해가는 부모와의 관계를 보상하기 위한 방어적 노력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적 노력으로 인하여 또 다른 "대상관계에 대한 생각(object relation ideation)과 대상관계 유지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다(Blos, 1967). 이것이 자신에게 투영되어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vision of the self)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는 현상이 상상속의 청중이다. 그리고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이 "자신의 내면을 날카롭게 관찰(self-observing ego)"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

면서부터 생긴 자신을 관리하는 주체의식(personal agency)때문에 이 시기의 과장된 자기통제감을 의식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나타난 "작인적(作因的) 자기중심성(agentive self-centeredness)"이라고 정의했다(Lapsley, Fitzgerald, Rice & Jackson, 1989; Lapsley & Rice, 1987).

Lapsley, Fitzgerald, Rice와 Jackson(1989)은 단순히 초기 청소년기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에 반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의 하나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과제를 수행하면서 청소년 개인 내면에 내재하는 의존 욕구가 투사적이고 부정적(denial)표현으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한편 국내연구(장근영과 윤진, 1992)에서도 상상속의 청중은 분리불안 및 함입불안과 관계가 있으며 개인적 우화는 자기몰입과 관계가 있었다. 이는 상상속의 청중이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불균형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라는 Lapsley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론적 개념정의를 통해 볼 때, 상상속의 청중에서 나타나는 방어적 특성이란 부모로부터 독립에 따른 대상관계의 보상이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강한 의존욕구와 그런 의존욕구의 충족과 기대,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독자적 삶을 영위해야 하는 불안, 또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 방어적 불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면에, 개인적 우화는 자신에 대한 과장된 통제감과 유능감으로서,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 때문에 개별적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는데 대한 불안과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긴 과장된 자기도취감, 그리고 이런 과장된 독자성이 방어적으로 표현된 대인관계에서 의존 욕구의 회피 등으로 표현된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분리 개별화 과정과의 관계에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간에 서로 다른 구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계를 검증하고

자 했다.

부가적으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하위구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므로써, Lapsley 등(1987)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정의를 부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즉, 상상속의 청중은 '대상관계 유지의 표현'이며, 그리고 개인적 우화는 '과장된 자기통제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두 구인에 대한 정의와 성역할 사회화 과정 간의 긴밀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의 경우 타인과의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가 주요 성역할 사회화 과제인 반면, 남자는 독립성과 자율성 등이 우선 과제이다. 이런 차이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하위구인의 정의의 차이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대인관계 유지 갈망이 더 강하고, 또 이는 상상속의 청중에 반영되어 그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우화 현상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과장된 자기통제감이 크고, 독자적 자율성과 유능감의 배양이란 사회화과정이 그 경향에 반영되어 개인적 우화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자아중심성과 적응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동서고금을 통해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무모한 행동(위협추구행동, 10대 임신, 약물사용, 폭주족, 비행)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로 여겨진다. 이런 무모한 행동은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일탈행동이나 정신병리의 지표가 아닌, 성인의 기준에 비추어 수용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모든 청소년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 이런 무모한 행동이 정신병리를 반영(Brill & Cristie, 1974)하거나 병리적 유전환경(pathogenic)을 지닌 가족(Dembo, Dertke, LaVoie, & Bonders, 1987)이나, 부모의 거부, 적대감, 부재 등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만연하는 무모한 행동은 이런 특수한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엔 일반적이고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다. 이런 행동특성을 설명하려는 연구자들은 발달 단계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요인으로 대두된 몇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Zuckerman(1979)의 감각추구행동과 Elkind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다(Arnett, 1990, 1992).

이렇듯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청소년기의 특유한 행동을 설명할 때, 유용하나 그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더우기 자아중심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중심을 두어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청소년의 적응차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자아개념(심리사회발달)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측면의 자아를 형성하고 이를 다시 재통합해야하는 변동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상적 자아와 새로운 정체를 형성하려는 강한 욕구로 인해 자아에 대한 반추적인 집착(reflective preoccupation)을 보인다. 임상적 문헌을 보면 청소년기는 내성(introspection)을 향한 극적인 관심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자아는 관찰과 숙고(reflection)의 대상이 된다(Freud, 1965). 또한 Erikson(1968)은 이 시기의 우회적인 자의식(self-consciousness)을 설명하면서 논리적으로 짜임새있게 통합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타인들의 눈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이전의 역할과 기술을 오늘날의 이상적인 전형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한다고 했다. 최근의 청소년기 자기 반영(self-reflection)이론에 따르면(Broughton, 1978, 1981; Lapsley & Rice, 1988; Selman, 1980), 초기 청소년기는 자아를 "나다"라는 확신을 넘어서 특히 "지적인" 자아의 존재에 대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

며, 후기 청소년기 동안에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서 합법성을 부여하는 문제에 집착한다. 청소년은 자아경계를 설정하고자 매우 세분화된 자아조망(self-landscape)을 제공하는 다양한 측면의 자아를 세분화해간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자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상속의 청중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낮은 자존심과 관계가 있으며(Hauck, Martens & Wetzel, 1986; Mullis & Markstrom, 1986), 그리고 Loevinger의 자아발달 단계와도 부적 관계를 보여(Lapsley, Jackson, Rice & Shadid, 1988), 상상속의 청중 현상은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것과 관련있다. 또한 상상속의 청중 경향은 정체감 형성과 부적 관련이 있었다(김인경과 장근영, 1992; Adams, Abraham & Markstrom, 1987; O'Connor & Nikolic, 1990; Protinsky & Wilkerson, 1986). 한편 상상속의 청중과 자의식은 중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Cohn et al., 1988; Enright, Shukla & Lapsley, 1980; Lechner & Rosenthal, 198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내적 지향성(introspectiveness) 간에도 중정도의 상관이 있다(김인경과 장근영, 1992).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청소년기의 자아에 대한 반추적인 집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상상속의 청중 척도(IAS)를 요인분석한 결과에서 입증되었다(Mullis & Markstrom, 1986). 상상속의 청중 척도(IAS)를 요인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공통요인에 대해 높은 요인부하를 갖는 문항이 서로 달랐다. 즉, 저연령에서는 개인의 일시적인 자아 속성 문항에, 그리고 나이든 청소년 후기에서는 지속적인 영구적인 자아 속성 문항에 대해 높은 요인부하를 보였다.

흔히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부정적 발달의 결과로 표현되므로 자아개념(심리사회적 발달)도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부정적 발달과 관련이 없다면 그동안의 일반적 관련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Lapsley의 정의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검토하고자 했다. 상상속의 청중은 대상관계 불안과 관련되므로 우울이나 고독감 그리고 불안 등 불안정한 정서상태나, 가족 및 친구관계와 같은 대인관계의 불안정함과 관련될 것이다. 반면 개인적 우화의 경우 자기도취적 자신감의 만연이라고 전제할때 신체상이나 가족 및 친구관계의 자신감과 학교나 집단에서 리더로서의 유능함 등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일 것이다.

3.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내용타당성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두 개념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하위구인으로서 개념화되어 왔으나, 기존 이론과 연구에서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뿐만아니라 최근 연구(김인경, 장근영, 1992; Lapsley et al., 1989)에서는 이 둘 간의 낮은 상관($r=.15$ 에서 $.25$)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자아중심성과 관련변인들의 연구에서 상상속의 청중은 자아관련 변인으로 자존심, 정체감, 자아발달(Mullis et al., 1986; O'Connor et al., 1990)과 의존성 및 신경과민 등의 사회적 기술부족(Cohn et al., 1988; Hauck et al., 1986)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개인적 우화는 적응 문제와 관련된 변인으로 자살상념과 우울증(Cole, 1988)과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구성내용의 차이를 밝혀 두 구인의 개념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분리개별화 및 자아개념의 하위영역들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하위구인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면, 두 구인 간에 낮은 상관을 보이는 이유와 두 하위구인의 구성내용의 차이를 추론할 수 있다.

방법

조사대상자

서울시내 4개 지역 소재 중학교 1학년 6학급(남 138명/여 155명 : 평균 12.8세)과 고등학교 1학년 6학급(남 141명/여 150명 : 평균 15.7세)을 표집하였다. 그리고 대학집단은 서울 소재 2개 4년제 대학(남 31명/여 48명 : 평균 19.8세)과 지방 소재 2개 4년제 대학(남 39명/여 51명 : 평균 20.2세)과 지방소재의 2개 전문대학(남 38명/여 41명 : 평균 19.5세)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249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전체 864명이 본 연구의 질문지에 응답했고 그중 32명의 불완전 응답자료를 제외한 후 총 832명의 자료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측정

Lapsley, FitzGerald, Rice와 Jackson(1989)의 상상속의 청중 척도(New Imaginary Audience Scale : NIAS)와 개인적 우화척도(New Personal Fable Scale : NPFS)를 사용했다(김인경, 1993a, b ; 김인경과 장근영, 1992 ; 장근영과 윤진, 1992). 상상속의 청중 척도는 대상관계 생각(object relational ideation), 대인관계적 환상(interpersonal fantasies),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이상적 상(visions of the self)으로 구성된 42문항의 4점 Likert척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앞선 연구(김인경, 1993b)에서 요인분석한 결과에 준하여 사용했다. 문항의 예는 '내가 유명해진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상상해 보는 일', '이성친구로부터 거절당하는 내 모습', '위협에서 친구를 구하는 내 모습'등으로 개인들이 평소에 이런 내용의 백일몽을 얼마나 자주 상상하

는지에 대해 응답하게 했다. 여기서 1점은 '전혀 없다'에서 4점은 '자주 있다'이며 높은 총점은 상상속의 청중 상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연구들에서의 내적 일치도(Chronbach's alpha)는 .82에서 .91사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개인적 우화 척도는 개인적 독특감(feelings of personal uniqueness), 전능감(omnipotence), 불멸감(invulnerability)을 내용으로 하는 46 문항의 '예, 아니요' 질문지이다. 문항의 예는 '나는 내가 마음먹은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고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피하지 못하는 사건도 피할 수 있다'등으로, 높은 총점은 개인적 우화 상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앞선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hronbach's alpha)는 .71에서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72였다.

2.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측정 : 분리개별화 과정

본 연구에서는 Levine, Green와 Millon(1986)의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 (Sepe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 SITA)를 사용했다(장근영과 윤진, 1992). 이 검사는 5점 Likert 척도로써 5점은 '매우 그렇다'에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높은 총점은 분리개별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심리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입불안(engulfment anxiety : 7문항)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인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진다는 내용으로, "가끔 부모님들이 나를 너무 과보호하셔서 숨이 막힐 것 같다" 등이 문항 예이다. 둘째, 의존부정(dependency denial : 12문항)은 의존 욕구에 대한 회피와 관계된 내용으로, "친한 친구가 없어도 내 삶은 풍부하다" 등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분리불안

(separation anxiety : 14문항)은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에 관한 내용으로, “혼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겁이 난다” 등이 문항의 예이다. 네째, 거부에 대한 기대(reject expectancy : 12문항)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하는 방어적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그 내용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등이다. 다섯째, 공생관계(nurturance-symbiosis : 8문항)로, 강한 의존 욕구를 소유하며 이런 욕구에 대한 만족과 기대에 따른 긍정적 느낌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부모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등이다. 여섯째, 자기도취(self-centeredness : 15문항)로 자신의 능력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도취감을 내용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드물다” 등이 문항 예이다. 일곱째, 건강한 독립(healthy separation : 7문항)으로 분리개별화 과정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과 관련된다. “비록 어떤 면에서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서로 닮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면도 역시 있다” 등이 문항 예이다. 여덟째, 친구와 결속강화(peer engulfment : 6문항)로 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강해진 정도를 나타낸다. “나는 내 친구 몇몇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등이 문항 예이다. 장근영과 윤진 (1992)은 내적 일치도(Chronbach's alpha)는 .83이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3. 심리사회 발달에 관한 자아개념 측정

Offer(1982) 등의 청소년을 위한 자아개념 척도(Self-Imag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 OSQ)와 이 척도를 중심으로 Petersen(1984) 등이 보완한 아동 및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IQYA (Self 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를 사용했다(이춘재, 1991 : 이춘재,

오가실, 및 정옥분, 1991 ; 김인경, 미출간). 본 척도는 6점 Likert척도로서 6점은 ‘나와 매우 비슷하다’, 1점은 ‘나와 전혀 다르다’로 자기보고식 평정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점이 높으면 자기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9개의 하위 영역은 청소년의 심리사회 발달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리더로서의 적응(superior adjustment ; 10문항)으로 학교나 집단에서 리더로서 유능하게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등이 문항예이다. 둘째, 정신병리(psychopathology : 14문항)로 정신병리적 상태의 유무를 묻는다. “나는 때때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숨어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 등이 문항 예이다. 셋째는 신체상(body image : 12문항)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만족감과 신체변화에 대한 만족정도가 그 내용이다. 그리고 “대체로 내 모습에 만족한다” 등이 문항 예이다. 네째는 충동통제(impulse control : 11문항)로 순간순간 유발되는 충동의 통제와 기분의 변화 상태를 측정한다.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난폭해진다” 등이 문항예이다. 다섯째는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s : 19문항)는 가족관계의 질과 부모-청소년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다. “부모님은 다른 형제 편을 들 때가 많다” 등이 문항 예이다. 여섯째는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s : 12문항)로 친구들과의 관계와 만족도 그리고 친구사귀는 능력을 묻는다.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다” 등이 문항예이다. 일곱째는 정서상태(emotional tone : 13문항)로서 우울, 고독감, 불안과 안정감을 포함한다.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등이 문항 예이다. 여덟째는 직업 및 교육목표(vocational-educational goals : 12문항)로 새로운 배움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다. “나는 일하기 보다 빈둥대고 싶다” 등이 문항 예이다. 아홉째는 대처능력(mastery

& copying : 14문항)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처 능력을 측정한다. “무슨 일이든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나도 잘 할 수 있다” 등이 문항 예이다. 이춘재 연구에서 척도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각 영역별로 .52에서 .76이고, 본연구의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62에서 .93이었다.

절차

실시 요령을 숙지한 연구원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급을 방문하여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척도와 분리개별화 과정 척도, 심리사회 발달에 관한 척도 그리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지를 이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대학 집단은 심리학 개론의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집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총 소요시간은 35분씩 이었다.

결 과

1. 연령증가에 따른 각변인의 발달 추이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각 변인들의 연령대(학년)에 따른 발달적 차이와 성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성(2) X 집단(3) 두 변인의 각 범주를 대비코딩(contrast coding)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R자승치의 의의도를 표 1, 표 2에 제시하였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하위영역으로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를 분석한 결과, 상상속의 청중경향은 중학집단에서 대학집단으로 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연령효과

($F_{2,750} = 37.424, p < .01$)를 보인 반면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 다른 영역인 개인적 우화 경향에서는 연령차이는 없는 반면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그 경향이 유의하게 높아 성별효과($F_{1,777} = 15.695, p < .01$)를 보였다. 한편 개인적 우화를 구성하고 있는 독특감(feeling of uniqueness)과 불멸성(invulnerability) 그리고 전능감(omnipotence)에 있어서, 연령효과 및 성별효과가 독특감의 경우에는 두 효과 모두 없었다. 불멸성($F_{1,797} = 28.046, p < .01$)과 전능감($F_{1,796} = 6.186, p < .01$)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상상속의 청중의 경우 연령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의 가정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개인적 우화에서는 연령효과가 없었다.

(2) 분리개별화과정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한 학년과 성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R자승치의 의의도를 표 3, 표 4에 제시했다.

각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함입 불안 영역에서는 연령효과($F_{2,802} = 4.966, p < .05$)가 있어서 대학 집단일수록 이런 방어적 특성이 감소하였다. 또한 남학생에게서 함입불안이 더 컸으나 유의한 성별효과는 없었다. 둘째, 분리불안은 연령효과($F_{2,781} = 8.171, p < .01$)를 보여, 중학생일수록 분리불안이 컸다. 그리고 성별효과($F_{1,782} = 6.620, p < .01$)가 있어, 여학생들이 분리불안을 더 많이 보였다. 셋째, 거부기대 영역에서는 연령효과($F_{2,786} = 16.258, p < .01$)를 보여, 대학생일수록 거부기대는 감소했다. 남학생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데 관한 불안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넷째, 의존부정 영역은 연령효과($F_{2,790} = 25.049, p < .01$)를 보여, 대학생일수록 그 경향이 감소했다. 그리고 성별효과($F_{1,791} = 11.$

표 1. 연령(학년) 및 성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평균(표준편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상상적 청중	96.58 (17.09) 112	98.71 (18.77) 135	97.65 (17.92) 247	105.01 (16.16) 127	102.14 (14.85) 140	103.58 (15.51) 267	105.55 (16.52) 92	107.03 (12.22) 144	106.29 (14.37) 236	102.31 (7.03) 331	102.65 (15.83) 419	102.49 (16.35) 750
개인적 우화	21.30 (5.55) 124	20.47 (5.36) 135	20.89 (5.45) 259	21.86 (5.33) 135	20.72 (5.72) 141	21.29 (5.52) 276	22.92 (5.94) 97	19.94 (5.33) 144	21.43 (5.63) 241	21.95 (5.69) 356	20.37 (5.46) 420	21.09 (5.58) 776
독특성	7.38 (2.21) 136	7.52 (2.24) 147	7.45 (2.23) 283	7.81 (2.69) 137	7.23 (2.46) 145	7.52 (2.58) 282	7.23 (2.21) 99	7.34 (2.38) 149	7.28 (2.30) 248	7.47 (2.37) 372	7.36 (2.36) 441	7.42 (2.36) 813
불명감	6.20 (2.31) 130	5.66 (1.19) 140	5.93 (1.75) 270	6.53 (2.28) 137	5.98 (2.13) 146	6.26 (2.20) 283	6.79 (2.24) 97	5.21 (2.12) 148	6.00 (2.18) 245	6.51 (2.27) 364	5.62 (1.81) 434	6.06 (2.04) 798
전능감	7.65 (3.02) 132	7.33 (3.30) 143	7.49 (3.16) 275	7.47 (3.18) 136	7.47 (3.34) 144	7.47 (3.26) 280	8.79 (3.83) 97	7.37 (3.17) 145	8.08 (3.40) 242	7.97 (3.28) 365	7.39 (3.27) 432	7.68 (3.26) 797

표 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연령 및 성별효과

변인	X1(β)	X2(β)	X3(β)	연령(F값)	성별(F값)
상상속의 청중	-.008	-.162**	-.150**	37.424**	.117
개인적 우화	.147**	-.029	-.030	.893	15.695**
독특감	.021	.037	-.009	.934	.533
불명감	.189**	.026	-.047	3.443 ⁺	28.046**
전능감	.103**	-.098**	-.011	5.942*	6.186*

⁺ $p < .10$ * $p < .05$ ** $p < .01$

성과 학년을 다음과 같이 대비코딩하였다.

X1 성의 주효과

X2 대학생 대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대비

X3 중학생 대 고등학생의 대비

표 3. 연령(학년) 및 성에 따른 분리개별화의 평균(표준편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합입	26.71	23.84	25.77	27.54	26.35	26.95	26.57	26.57	25.59	26.46	25.92	26.16
불안	(6.61)	(6.88)	(6.75)	(6.70)	(7.69)	(7.20)	(6.97)	(6.86)	(6.92)	(6.82)	(7.17)	(7.02)
	131	144	275	136	146	282	97	148	245	364	348	802
분리	29.11	30.77	29.94	29.54	29.13	29.34	27.05	29.05	29.56	28.72	29.81	29.33
불안	(5.92)	(6.98)	(6.45)	(5.83)	(5.15)	(5.49)	(5.78)	(5.35)	(5.57)	(5.92)	(5.90)	(5.93)
	120	144	264	134	145	279	93	146	239	347	435	782
거부	25.83	24.16	25.00	24.37	23.22	23.80	21.67	23.27	22.47	24.15	23.54	23.82
기대	(6.71)	(7.70)	(7.21)	(5.88)	(5.97)	(5.93)	(5.69)	(5.53)	(5.61)	(6.33)	(6.45)	(6.40)
	125	140	265	135	143	278	96	147	243	356	431	787
의존	23.98	21.36	22.67	20.88	19.92	20.40	20.43	20.21	20.32	21.85	20.47	21.10
부정	(6.20)	(5.31)	(5.76)	(5.09)	(5.80)	(5.45)	(5.71)	(5.21)	(5.46)	(5.87)	(5.47)	(5.69)
	127	136	263	137	146	283	96	146	242	360	432	792
자기	25.91	24.55	25.24	26.25	24.69	25.47	26.50	26.04	26.27	26.21	25.09	25.59
몰입	(6.49)	(6.06)	(6.27)	(6.10)	(5.69)	(5.89)	(6.10)	(5.15)	(5.64)	(6.23)	(5.67)	(5.94)
	120	143	263	135	142	277	95	147	242	350	433	784
건강한	32.76	33.35	33.06	34.79	36.05	35.42	34.79	36.76	35.78	34.07	35.43	34.81
독립	(6.01)	(5.84)	(5.93)	(5.31)	(5.02)	(5.16)	(4.72)	(5.23)	(4.97)	(5.50)	(5.55)	(5.56)
	130	140	270	135	142	283	99	148	247	364	437	802
공생	31.52	31.36	31.44	30.26	28.27	29.26	27.43	29.16	28.30	29.96	29.58	29.75
관계	(7.17)	(7.20)	(7.19)	(7.33)	(6.64)	(6.98)	(6.45)	(6.43)	(6.44)	(7.21)	(6.86)	(7.02)
	132	145	277	134	147	281	96	147	243	362	440	803
친구와	33.88	32.73	33.31	35.09	34.98	35.04	34.26	36.45	35.35	34.43	34.74	35.61
결속	(7.74)	(7.17)	(7.46)	(6.68)	(6.32)	(6.50)	(6.24)	(5.34)	(5.79)	(6.97)	(6.47)	(6.70)
	132	142	274	137	146	283	97	147	244	366	436	803

표 4. 분리개별화과정의 연령 및 성별효과

변인	X1(β)	X2(β)	X3(β)	연령(F 값)	성별(F 값)
함입불안	.026	.051	-.070*	4.966*	1.145
분리불안	-.105**	.103**	.042	8.171**	6.620**
거부기대	.031	.139**	.078*	16.258**	1.757
의존부정	.111**	.098**	.166**	25.049**	11.473**
자기몰입	.095**	.040	-.016	.206	6.827**
건강한 독립	-.114**	-.128**	-.177**	41.756**	11.963**
공생관계	.010	.135**	.129**	25.997**	.564
친구와 결속	-.023	-.082*	-.107**	16.659**	.431

** $p < .01$ * $p < .05$

성과 학년을 다음과 같이 대비코딩하였다.

- X1 성의 주효과
- X2 대학생 대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대비
- X3 중학생 대 고등학생의 대비

473, $p < .01$)가 있어, 남학생의 경우 의존부정을 더 많이 나타냈다. 다섯째, 자기몰입 영역은 대학 집단일수록 이런 방어적 특성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였다. 또한 성별효과($F_{1,783} = 6.827, p < .01$)가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더욱 강한 자기몰입 특성을 보였다. 여섯째, 건강한 심리적 독립에서 연령효과($F_{2,800} = 11.963, p < .01$)가 있어, 대학생일수록 건전한 심리적 독립을 보였다. 그리고 성별효과($F_{1,801} = 41.756, p < .01$)가 있어, 여학생의 경우 심리적 독립이 더 잘되어 있었다. 일곱째, 공생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연령효과($F_{2,802} = 25.997, p < .01$)가 있어, 대학 집단일수록 강한 의존욕구의 문제가 적어지나, 성별효과는 없었다. 여덟째, 친구와의 결속강화 영역에서는 연령효과($F_{2,801} = 16.659, p < .01$)가 있어, 대학 집단일수록 그 경향이 커졌으나, 성별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연령과 성의 효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분리개별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감소

했다.

특히, 함입불안, 분리불안, 거부기대, 의존부정과 같은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은 감소를 보이거나 자기몰입, 건강한 독립, 친구와 결속과 같은 개인의 독자성에 대한 영역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리개별화 과정의 성별차이는 의존 부정과 자기몰입 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이 비해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즉, 남학생이 자신에 대한 독자성을 유지하려는데 강한 욕구가 많음을 시사한다. 한편 건강한 독립에 있어서 여학생이 일관되게 더욱 독립적임을 보여 대인관계에서 더 성숙함을 보였다. 그리고 분리불안과 함입불안과 관련해서, 가족과의 애정적 관계가 소원해지는데 따른 불안은 여학생이 높은 반면, 부모의 관심과 간섭에 대한 불안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3) 심리사회 발달 측면의 자아개념

심리사회발달을 내용으로 하는 자아개념 측정치의 학년(연령) 및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R자승치를 표 5와 표 6에 제시했다.

표 5. 연령(학년) 및 성에 따른 심리사회발달의 자아개념 평균(표준편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리더	55.47	53.74	54.60	46.14	50.96	49.55	50.98	48.55	49.76	51.28	51.54	51.28
로서의 적용	(8.38)	(9.27)	98.82)	(7.71)	(7.48)	(7.60)	(6.65)	(6.61)	(6.63)	(8.29)	(8.11)	(8.19)
	129	142	271	133	142	275	97	143	240	359	427	786
정신 병리	55.44	54.68	55.06	51.26	50.29	50.77	55.45	50.48	52.96	53.89	51.86	52.80
	(11.26)	(11.87)	(23.13)	(8.76)	(10.19)	(9.47)	(6.47)	(8.30)	(8.10)	(9.73)	(10.39)	(10.14)
	132	147	279	135	140	275	97	147	244	364	434	798
신체상	44.68	42.77	43.79	39.51	39.59	39.55	41.15	38.34	39.74	41.78	40.20	40.91
	(8.52)	(8.19)	(8.35)	(7.59)	(6.88)	(7.23)	(6.47)	(6.15)	(6.31)	(7.96)	(7.29)	(7.63)
	127	141	268	135	145	280	97	147	244	359	434	794
충동 통제	39.52	38.92	39.22	36.23	37.13	36.68	38.30	37.03	37.66	37.96	37.69	37.82
	(8.11)	(7.47)	(7.79)	(6.37)	(6.70)	(6.53)	(5.66)	(6.26)	(5.96)	(6.99)	(6.85)	(6.91)
	128	140	268	136	144	280	99	148	247	363	433	797
가족 관계	80.67	79.91	80.29	70.55	74.05	72.30	77.72	73.35	75.53	75.93	76.13	75.75
	(12.46)	(12.92)	(12.69)	(12.57)	(13.23)	(12.90)	(10.27)	(10.87)	(10.57)	(12.70)	(12.67)	(12.67)
	125	139	264	129	140	269	96	148	244	350	428	779
친구 관계	47.77	47.22	47.49	43.94	46.39	45.16	44.62	43.35	43.97	45.52	45.62	45.57
	(9.38)	(9.97)	(9.67)	(7.44)	(7.87)	(7.65)	(7.49)	(7.82)	(7.65)	(8.36)	(8.74)	(8.57)
	131	141	272	132	135	267	97	146	243	360	423	784
정서 상태	50.59	48.95	49.77	45.54	42.74	44.14	46.48	42.69	44.58	47.57	44.79	46.08
	(10.47)	(10.24)	(10.35)	(7.86)	(8.28)	(8.07)	(8.17)	(7.85)	(8.10)	(9.19)	(9.30)	(9.35)
	123	136	259	131	137	268	99	143	242	353	417	771
직업/ 교육 지향	47.95	49.83	48.89	44.48	48.22	46.35	47.71	46.38	47.04	46.58	48.13	47.42
	(6.92)	(6.88)	(6.90)	(6.77)	(6.63)	(6.70)	(5.70)	(5.34)	(5.52)	(6.74)	(6.44)	(6.62)
	129	145	274	137	139	276	98	149	247	364	433	799
대처 능력	51.83	50.06	50.94	47.05	47.10	47.07	50.10	45.67	47.88	49.59	47.60	48.49
	(7.68)	(8.51)	(8.09)	(7.33)	(7.76)	(7.54)	(6.51)	(6.88)	(6.70)	(7.51)	(7.93)	(7.80)
	126	143	269	130	142	272	96	148	244	352	434	787

세부 하위 영역별로 그 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리더로서의 적용 영역에서는 연령효과($F_{2,787} = 17.705, p < .01$)가 있어, 중학 집단이 대학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였으나, 성별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정신병리영역에서는 연령효과($F_{2,798} = 26.181, p < .01$)가 있어, 대학 집단일수록 부정적인 자아개념 점수를 보였고, 성별효과($F_{1,798} = 8.170, p < .01$)가 있어서,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냈다. 셋째, 신체상 영역은 대학 집단일수록,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더욱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여, 연령효과($F_{2,792} = 55.600, p < .01$)와 성차효과($F_{1,793} = 8.513, p < .01$)가

24.730, $p < .01$)는 있어, 대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친구관계를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성별효과는 없었다. 일곱째, 정서상태에서는 연령효과($F_{2,768} = 65.993, p < .01$)가 있어서, 대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점수를 보였고, 성별효과($F_{1,770} = 7.672, p < .01$)도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여덟째, 직업 및 교육지향에서는 중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이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여 연령효과($F_{2,797} = 24.239, p < .01$)와 성별효과($F_{1,798} = 10.811, p < .01$)가 있었다. 아홉째, 대처능력에 있어서 연령효과($F_{2,785} = 40.580, p < .01$)를 보여, 대

표 6. 심리사회발달의 자기개념의 연령 및 성별효과

변인	X1(β)	X2(β)	X3(β)	연령(F 값)	성별(F 값)
리더로서 적용	.027	-.084**	.257**	71.584**	.628
정신병리	-.093**	.110**	.176**	26.181**	8.170**
신체상	.101**	.114**	.227**	55.600**	8.513**
충동통제	.023	.019	.153**	19.042**	.318
가족관계	.021	.028	.261**	57.088**	.206
친구관계	-.012	-.060	.113**	24.730**	.025
정서상태	.147**	.119**	.249**	65.993**	17.672**
직업 / 교육지향	-.107**	-.114**	.159**	24.239**	10.811**
대처능력	.130**	-.106**	.206**	40.580**	12.956**

** $p < .01$ * $p < .05$

성과 학년을 다음과 같이 대비코딩하였다.

X1 성의 주효과

X2 대학생 대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대비

X3 중학생 대 고등학생의 대비

있었다. 네째, 충동통제 영역에서는 연령효과($F_{2,796} = 19.042, p < .01$)가 있어서, 대학 집단일수록 부정적인 점수가 나왔고, 성별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연령효과($F_{2,778} = 57.088, p < .01$)를 나타나, 대학생일수록 부정적인 관계를 보고했으나 성별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섯째, 친구관계에서는 연령효과($F_{2,783}$

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점수를 보였고, 성별효과($F_{1,786} = 12.296, p < .01$)가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은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인지적 성숙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신병리, 신체상, 정서상태, 대

치능력 등의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의 자아개념이 남학생에 비해 낮았다. 이는 정신건강 차원에서 여학생이 더 취약함을 시사하며, 신체상과 관련한 청소년기의 부정적 자아개념은 외국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직업 및 교육 지향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인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

분리개별화과정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단순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표 7.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분리개별화과정의 상관

	상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
합입불안	.1795**	.0576
자기몰입	.3884**	.5004**
분리불안	.2720**	-.1285**
건강한 독립	.2144**	.1244**
거부기대	.0473	.0060
의존부정	-.0094	.1708**
공생관계	.1496**	-.0211
친구와 결속	.2688**	.1098**
연령	.2108**	.0148
성	.0079	-.1649**

** $p < .01$

표 7에 제시했듯이 상상속의 청중은 연령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개인적 우화는 성별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래서 분리개별화 과정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령효과와 성별효과를 통제하였다.

그리고 연령효과를 뺀 순수한 분리개별화 과정 ($\Delta R^2 = .1969, F_{1,598} = 155.1538, p < .01$)이 상

상속의 청중 경향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분리개별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록 상상속의 청중 경향도 증가함을 시사한다. 또한 하위영역과 상상속의 청중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몰입($\Delta R^2 = .0707, F_{1,598} = 55.7104, p < .01$)과 분리불안($\Delta R^2 = .0253, F_{1,598} = 19.9596, p < .01$)이 상상속의 청중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성별효과를 통제한 순수한 분리개별화 과정 ($\Delta R^2 = .3090, F_{1,598} = 278.3304, p < .01$)이 개인적 우화 경향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분리개별화과정의 어려움이 클수록 개인적 우화 경향도 증가했다. 또한 하위영역에서, 자기몰입($\Delta R^2 = .2067, F_{1,598} = 186.1842, p < .01$) 및 의존부정($\Delta R^2 = .0101, F_{1,598} = 9.1254, p < .01$)과 개인적 우화는 정적 관계를 보였고, 분리불안($\Delta R^2 = .0284, F_{1,598} = 25.6017, p < .01$)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그이외의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상상속의 청중은 가족을 떠나는데서 생긴 불안함과 관련이 있었고, 개인적 우화는 가족을 떠나 홀로서는데 대한 불안과 강한 의존 요구를 부정하는 방어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설명하는 분리개별화 과정의 하위영역들 중에서 분리불안과 의존부정 그리고 공생관계의 하위영역이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에 상반된 방향의 상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상상속의 청중 및 개인적 우화 경향을 분리개별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 과정 내의 여러 방어적 행동특성이 두 구인에 대해 각각 다른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한편 하위영역 중에서 자기몰입이 두 구인과 공통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자아에 대한 내적 집착에서 생성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표 8에 제시된 자아개념(심리사회발달)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연령 및 성별과 상관이 있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령효과와 성별효과를 통제하였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적응, 가족 및 친구 관계, 직업/교육지향 영역은 연령효과와 영향을 통제하고, 정신병리 영역은 성별효과를 제외했으며, 신체상, 정서상태 그리고 대처능력 영역에는 연령과 성별효과 모두를 통제하여 각 변인과 상상속의 청중 및 개인적 우화의 순수한 관계를 추출했다.

먼저 상상속의 청중 경향은 정신병리($\Delta R^2 = .0227, F_{1,551} = 12.9519, p < .01$), 친구관계($\Delta R^2 = .0091, F_{1,551} = 5.1666, p < .05$) 영역과 부적 관계를 보였고 직업/교육지향($\Delta R^2 = .0253, F_{1,551} = 14.4958, p < .01$) 영역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타 다른 영역들과도 유의하지는 않으나 모든 영역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심리사회발달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상속의 청중은 부정적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개인적 우화는 리더로서의 적응($\Delta R^2 =$

$.0896, F_{1,551} = 52.4219, p < .01$), 정신병리($\Delta R^2 = .0477, F_{1,551} = 27.9720, p < .01$), 신체상($\Delta R^2 = .0392, F_{1,551} = 23.6727, p < .01$), 충동통제($\Delta R^2 = .0231, F_{1,551} = 6.5031, p < .05$), 가족관계($\Delta R^2 = .0378, F_{1,551} = 21.5960, p < .01$), 친구관계($\Delta R^2 = .0465, F_{1,551} = 26.3541, p < .01$), 정서상태($\Delta R^2 = .0455, F_{1,551} = 27.9074, p < .01$), 직업/교육지향($\Delta R^2 = .0590, F_{1,551} = 35.0031, p < .01$), 대처능력($\Delta R^2 = .2005, F_{1,551} = 155.3713, p < .01$)의 모든 심리사회발달 영역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 우화 경향은 심리사회 발달의 각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하위 구인,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가 자아개념의 각 하위영역과 서로 상반된 방향의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했다. 동시에 이런 관계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개념 내의 두 하위구인이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내용타당성

앞선 검증을 통해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두 개념 내의 구성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표 8.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심리사회발달의 상관

	상상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	연령	성
리더로의 적응	-.0098	.2917**	-.2369**	-.0401
정신병리	-.1548**	.2315**	-.0637	-.1136**
신체상	-.0449	.2042**	-.1929**	-.1179**
충동통제	-.0748	.1517**	-.0562	-.0101
가족관계	-.0254	.1905**	-.1203**	-.0139
친구관계	.0642	.2113**	-.1351**	.0000
정서상태	-.1120**	.2223**	-.1984**	-.1409**
직업/교육지향	.1038**	.2392**	-.1115**	.0728
대처능력	.0654	.4534**	-.1320**	-.1135**

** $p < .01$

수 있다. 표7과 표8을 보면, 상상속의 청중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혼자되는데 대한 불안(분리불안)과 부정적 정서상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 우화는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에게 의존하고자 하지 않으며(의존부정)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상상속의 청중은 청소년이 대인관계에서 독립성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 혹은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개인적 우화는 대인관계에서 독자성이 확립되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심리사회적 발달이 잘 되어있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구인이 적응문제와 관련해서, 부적응과 적응 잠재력이란 서로 상반된 방향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자아중심성이란 한 개념으로 통칭하여 적응과의 관계를 논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 특유의 현상을 설명하는 별개의 개념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성차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하위 구인의 경향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9와 같다. 개인적 우화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상상속의 청중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관련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성차이에 대한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자아중심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논 의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분리개별화과정과의 관계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역동적 혼란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발생 원인으로 본 Lapsley의 가정을 검토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분리개별화 과정의 어려움이 감소하고,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증가했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분리개별화 과정간의 정적 관련을 보여서 Lapsley의 가설을 지지했다. 구체적으로 상상속의 청중은 부모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의존 욕구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런 욕구를 충족하려는 갈망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적 우화는 이와 반대로 타인에 대한 의존이나 분리에 따른 불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따른 갈등이 방어적 행동으로 표현된

표 9.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성별효과

	남	여	전체	성별 F값
상상적 청중	102.31 (7.03) 331	102.65 (15.83) 420	102.49 (16.35) 752	.117
개인적 우화	21.95 (5.69) 356	20.37 (5.46) 421	21.09 (5.58) 778	15.695**

()안은 표준편차

*p<.05 **p<.01

다는 Lapsley 등(1987)의 새로운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분리개별화 과정 중 자기몰입 영역이 자아중심성의 두 구인과 정적 관계를 보여, 자아중심성이 청소년기의 자신에 대한 내적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자아이해 과정의 이론적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분리불안, 의존부정, 공생관계의 영역은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에 대해, 서로 상반된 방향의 상관을 보이므로 이들 두 가지 구인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문은 이론적으로 볼 때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건강한 독립 및 친구와 결속영역과 부적 관계를 보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이에 대한 가능한 해답을 우리 문화적 환경 요인과 청소년 중기 이후의 자아중심성 증가와 관련된 현상이라고 가정해 보았다.

문화마다 청소년들에게 부여되는 발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압력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상당히 서구지향적인 과제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확고한 가부장제도와 조상숭배로 표현되는 강한 부자관계를 지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서로 물리적으로 독립된 자율적 존재이기는 하나, 심리적으로는 성인기 이후까지도 의무와 권리가 지속적으로 남아서, 윤리적으로 승화되어 예절로 표현된 문화이다.

즉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우리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하는 서양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곧 청소년의 개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경우 건강한 독립과 친구와의 결속이 분리개별화의 완성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따라서 그 관계가 부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청소년의 개별성 확립 과정은 다소 구별되는

시기에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점이 우리나라 연구들(김인경과 장근영, 1992; 장근영과 윤진, 1992)에서 나타났던 청소년 중기 이후의 자아중심성의 증가 현상을 발달적 지연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환경 요인의 차이에서 생긴 영향이라는 해석을 검토하게 한다.

이런 예측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예는 Havighurst(1972)와 김종서 등(1982)의 발달과업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서 알 수 있다. 서양의 중기나 후기 소년의 과제가 우리 문화에서 성인초기의 과제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웃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Havighurst의 분류에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지만, 김종서의 분류에 따르면 그런 발달과업은 없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웃어른 공경과 같은 서양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인적 우화의 경우는 이런 설명 이외 그 개념적 정의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추론해 보건데, 청소년의 독립과 자율성 그리고 정신적 건강으로 대변되고 있어, 건강한 독립이나 친구와의 결속과는 정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인 추후 연구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적응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청소년들의 적응력 및 정신건강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아개념(심리사회발달)을 측정된 결과는, 자아개념과 상상속의 청중은 부적 상관을, 개인적 우화와는 정적 상관을 보여, 자아중심성의 두 가지 하위 구인들과 자아개념(심리사회발달) 간에 서로 상이한 관련을 맺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이런 결과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가 설명하는 자아개념 영역의 차이를 보였다. 즉, 상상속의 청중은 정신병리와 정서상태 그리고 기타 사회적 관계의 부족과 같은 부적응과 관련을

보인 반면, 개인적 우화 경향이 높은 청소년은 대처능력, 리더로서의 적응 및 직업, 교육지향 등, 일반적 적응력과 사회적 관계의 유능성 등의 모든 영역에서 적응 잠재력을 보였다. 이 결과는 Cole (1989)처럼 개인적 우화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상상속의 청중은 자신에 대한 환상, 특히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친밀감 형성이나 거부당하는데 대한 두려움 등과 관련이 있고 자아개념의 영역에서도 고독감, 우울, 정서 불안정과 관련을 보여 청소년기의 부적응을 설명하는 변인과 관련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아중심성과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정서적 불안정과 부적응의 관계, 혹은 이들 간에 내재된 매개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결정적 답을 내리기에는 미흡하다. 청소년 각 개인에게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경향이 어느 정도로 다양하게 발현될 것이며 이것이 어떤 기제를 통해 부적 혹은 정적 행동으로 연결될 것이냐가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하며 이점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내용타당성

본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하위구인이 측정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반된 방향의 상관을 보여,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라는 한 개념으로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두가지 측정변인 중 분리개별화 과정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에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서로 다른 하위영역과 관련을 맺고 있어 두 구인의 속성이 다를 것을 보였다. 즉, 상상속의 청중은 의존부정과 거부기대를 제외

한 분리개별화과정의 모든 방어적 행동과 정적 상관관이 있고, 특히 자기몰입과 분리불안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우화는 자기몰입, 건강독립, 의존부정, 친구와의 결속 등과 정적 상관, 그리고 분리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합입불안, 거부기대, 공생관계와는 관계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간의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데, 공통점은 이들 두 구인이 자기몰입과 정적 관계를 보이므로 두 구인이 청소년기의 자신에 대한 내적 집착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구인 간에 차이점은 분리불안과 의존부정 그리고 공생관계 영역이다. 상상속의 청중은 분리불안이나 공생관계들과 관련되어 부모와 의존관계 및 정서적 애착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남아있는 상태를 보였고 개인적 우화는 부모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이나 정서적 애착에 대한 욕구가 없는 상태를 나타냈다. 즉, 상상속의 청중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동시에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갈망도 있어, 의존과 독립 욕구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반면에, 개인적 우화는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에 대한 갈망이 적고, 자신에 대한 내적 통제 욕구가 강하고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와 과장된 자기 효능감에 몰입된 상태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의 또 다른 측정치인 심리사회 발달을 측정하는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상속의 청중은 정신병리, 정서상태 등과 부적 상관관이 있고 특히, 모든 하위영역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개인적 우화는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두 구인이 서로 상반된 방향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상상속의 청중은 일반적인 부적응의 문제와, 개인적 우화는 적응 잠재력과 연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가 청소년의 부정적 및 긍정적 자아개념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추론되는 한가지 가정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높더라도 두 하위구인 중 어느 쪽이 더 높으나에 따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향과 회의적 반응을 많이 드러낼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도취적 자신감이 표현되어 긍정적 자기평가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상속의 청중(IA)과 개인적 우화(PF) 점수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4집단(2 IA X 2 PF)을 구성하고(가. IA상 PF상 / 나. IA하 PF하 / 다. IA상 PF하 / 라. IA하 PF상) 자아개념의 집단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상속의 청중이 낮고 개인적 우화가 높은 집단(집단 라)이 자기평가를 가장 긍정적으로 하였으며, 반대로 상상속의 청중이 높고 개인적 우화가 낮은 집단(집단 가)이 가장 낮은 자기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상상속의 청중은 자아개념을 낮추는 반면 개인적 우화는 이를 높이는 작용을 했다. 그러므로 두 구인은 그 내용상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며, 서로 분리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하위영역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두 개념에 대한 관계성을 부분적으로 밝힘으로써 두 구인 간의 낮은 상관을 보이는 원인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렇게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두 구인이 어떤 공통적 혹은 구별되는 기제로 인해 하나의 상위개념에 포함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추후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4. 본연구의 결론 및 제언

연령증가에 따른 상상속의 청중경향의 증가현상이 외국연구에서 주장하듯이 과연 발달적 지체로 볼것이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발달적 변화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하위구인 중에서 상상속의 청중 만이 연령증가와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가족관계와 분리개별화과정 그리고 자아개념(심리사회발달) 모두에서 연령증가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여기서 드러난 분리개별화 과정의 발달적 변화는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상적인 추이이며,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독자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반면, 연령증가에 따라 자아개념에서 부정적 지각이 증가하는 현상은 청소년의 사고의 발달적 결과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추상적 사고 능력이 확대되어, 사물과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이며 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사항은 물론 자신과 관계된 타인이나 사건에 대해 보다 객관적 관점을 갖게 되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도 크게 지각한다. 따라서 자아개념의 부정적 측면이나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불만이 어린시기에 비해 더욱 커진다. 이런 점은 정신건강의 차원에서는 적용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나 인지발달의 측면에서는 성장의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적 관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중심성 증가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분리개별화, 그리고 자아개념(심리사회발달)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 과정을 추론해 보았으나 결과는 미흡했다. 또한 후기 청소년기에서 자아중심성 경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다른 영역에서의 발달은 성숙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아중심성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이런 현상이 청소년 발달의 일시적 퇴행(Blos, 1967)이라는 견해에 대한 추후연구

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적응 문제와의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자아확립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간의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적용시킬 피험자 범위와 관련해 볼 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 시기의 자아중심성이 일반적 발달의 결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국민학교 상급반과 같은 청소년 전기의 아동으로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발달곡선을 얻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인경(1993a).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 가족관계, 분리개별화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인경(1993b).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2), 96-119.

김인경(미출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자아발달 및 심리사회발달의 관계.

김인경과 장근영(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4(1), 143-156.

김종서, 남정걸, 정지용, 및 이용환(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82-7.

양은주(1992).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 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춘재, 오가실, 및 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3(1), 89-102.

장근영과 윤진(1992). 분리개별화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4(1), 157-176.

최상진(1993).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자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2), 24-33.

최상진과 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6(2), 137-157.

Adams, G. R., Abraham, K. G., & Markstrom, C. A. (1987). The relations among identity development, and self-focusing during middle and late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92-297.

Arnett, J. (1992).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339-373.

Arnett, J. (1990). Drunk driving, sensation seeking, and egocentrism amo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541-546.

Arnett, J. (1990). Contraceptive use, sensation seeking and adolescence egocentr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171-180.

Blos, P. (1967). *On adolescence*. N.Y. : The Free Press.

Brill, H. Q., & Cristie, R. L. (1974). Marijuana us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 Follow up study of a college population. *Archives of Genetic Psychology*, 31, 713-719.

Broughton, J. (1978). Development of concepts of self, mind, reality and knowledge. In W. Damon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Vol. 1*.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Broughton, J. (1981). The divided self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4, 13-32.

Cohn, L. D., Millstein, S. G., Irwin, C. E. Jr.,

- Adler, N. E., Kegeles, S. M., Dolcini, P., & Stone, G. C. (1988).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egocentr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212-222.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Dembo, R. L., Derkte, M., laVoie, L., & Bonder, S. (1987). Physical abuse, sexual victimization, and illicit drug use : A structural analysis among high risk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0, 13-34.
-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Enright, R. D., Lapsley, D. K., & Shukla, D. G. (1980). Adolescent egocentrism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14, 687-695.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 Y. : Wiley.
- Fisher, K. W. (1980). The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ical Review*, 87, 477-531.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 Y. : Wiley.
- Hauck, W. E., Martens, M., & Wetzel, M. (1986). Shyness, group dependence and self-concept : Attributes of the imaginary audience. *Adolescence*, 21, 529-534.
- Lapsley, D. K., Fitzgerald, D. P., Rice, K. G., & Jackson, S. (1989). Separation-individuation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A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 483-505.
- Lapsley, D. K., Jackson, S., Rice, K., & Shadid, G. E. (1988). Self-monitoring and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An ego-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7-31.
- Lapsley, D. K., & Rice, K. (1987).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Toward a general model of adolescence ego development.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 Integrative approaches*. N. Y. : Springer.
- Lechner, C. R., & Rosenthal, D. A. (1983). Adolescent self-consciousness and the imaginary audience.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10(2), 289-305.
- Levin, J. B., Green, C. J., & Millon, T. (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1), 123-137.
- Mullis, R. L., & Markstrom, C. A. (1986). An analysis of the imaginary audience scal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 305-316.
- O'Conner, B. P., & Nikolic, J. (1990). Identity development and formal operations as sources of adolescence egocentr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149-158.
- Offer, D., Ostrov, E., & Howard, K. I. (1982). *A Manual for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3rd ed.)*. Michael Reese Hospital & Medical Center, Chic-

- 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rterse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 Jarcho, H. D. (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93-111.
- Protinsky, H., & Wilkerson, J. (1986). Ego identity, egocentrism, and formal operations. *Adolescence, 21*, 461-466.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Y. : Academic Press.
- Zuckerman, M. (1979). Sensation-seeking and risk taking In C. E. Izard (Eds.),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N.Y. : Plenum.

A Content Validation Study of the Subconstruct of Adolescence Egocentrism

In - Ky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had three major purposes as follows : 1) to explore the relations of individuation separation with adolescence egocentrism ; 2)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ility of adjustment and the egocentrism, in order to confirm the negative influence of the egocentrism on adolescent development ; 3) to establish the content validation of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which are the subconstructs of adolescence egocentrism. Eight hundred and thirty-two Korean adolescents, who are composed of 293 in early (average age : 12.8, man : 138 / woman : 155), 291 in middle (average age 15.7, man : 141 / woman : 150), and 248 in late adolescents (average age 19.8, man : 108 / woman : 140), answered the adolescence egocentrism scales(NIAS / NPFS), the secondary individuation separation scales(SITA), and the self-image scales(SIQYA). Data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tion separation was positively and linearly related with egocentrism, which agreed with Lapsley's hypothesis(1987). Especially, even though both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are the subconstructs of adolescence egocentrism, they were correlated with different domains of individuation separation ; imaginary audience is related with separation anxiety, while personal fable is related with self-involvement and need denial. It also showed that imaginary audience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all domains of self-image, while personal fable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m. From these results altogether it can be concluded that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are different concepts and also have different effects on adjustment. Consequently, it is suggested that both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may not be the subconstructs of adolescence egocentrism, but rather indicate two distinctive adolescent phenomena.